

끝이지 않는 잡음, 2022 총장선거

다가오는 제8대 총장선거, 향후 선거 일정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제8대 총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1인 실질 유효표 최종 0.1표에 그쳐 ...

한국체대 총장은 한국 체육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기 때문에, 학교 총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체육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계와도 긴밀히 맞닿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장 선거가 더욱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 6월부터 불거진 총장 투표 선거 비율 문제 때문이다. 총장 선거 투표 비율에 대한 이슈는 올해 6월부터 계속 불거져 왔다. 내

용인측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24조(대학의 장의 임용)의 적용을 받는 첫 총장 선거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투표권 반영 비율의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24조(대학의 장의 임용)

개정 전: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따른다.

개정 후: 해당 대학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따른다.

변경 전 우리 학교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은 전체비율 100% 중 교수 83%, 직원 및 조교 12%, 학생 5%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표는 0.002표에 그쳤다. 이에 총학생회(제44대 총학생회 with:u)는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향상을 위해 각종 설문조사 진행, 총장간담회를 통한 공식 질의 및 학교 정문 기자회견, 파켓시위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규정에 어긋난 대학의 결정, 법적 문제로 불거지다

정부는 3주체의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교원 위주로 구성된 임시 회의체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TF’를 만들었다. 11명의 구성원 중 교원이 이미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하였다. 한국체육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선정 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교무회(보직교수) 위원은 총추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추위 규정 개정 TF에 보직교수이자 교무회 위원인 교무처장이 위원으로 배석되어 있었다. 교무회 위원은 현 총장의 임명을 받은 보직교수이기 때문에 다음 총장 선거 진행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교무회 위원이 총추위를 비롯해 총추위 규정을 개정하는 회의체에 들어옴에 따라 결론적으로 동수 구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비합리적인 회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원 위주로 구성된 총추위안에서는 학생 의견을 묵살하기에 바빴고, 각각 구성원의 의견이 합의되지 못하자 총학생회장은 대학 내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평의회’로 해당 안건을 넘길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평의회 역시 의견이 갈리자 표결을 통한 결정을 계속해서 유도하며 과반수의 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결국 과반수 표결로 “교원, 직원, 학생, 동문의 투표 비율을 각각 70%, 20%, 9%, 1%로 한다.”를 졸속 통과시키며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비율이 최종 결정되었다.

반영 비율별 유효 투표수는 다음 표와 같다.

학교 구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을 시 전체 표는 171,4286표로 구성원별 유효 투표수는 직원 120표, 직원 및 조교 34,2857표, 학생 및 동문 17,171429표로 나타났다. 총장 투표 반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원에게 비하면 학생은 턱없이 적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구성원별 1인 유효표는 교원 선거인 120명, 직원선거인 169명, 학생선거인 140명, 동문선거인 100명을 기준(현안)으로 각각 교원 1.1표, 직원 0.2표, 학생 0.1표, 동문 0.01표이다. 해당 상황 속 대학 본부가 총장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함에 따라 총학생회는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학생 측 변호사를 통해 투표 비율 합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학생 측 변호사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학의 총장을 결정하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선거가 12월 1일에 진행된다. 이번 총장 선거는 11월 8일, 선거공고일을 시작으로 11월 15일과 16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거친다. 이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선거 운동을 진행한 후 합동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1일에 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투표 방법은 현장 투표로 오륜관 2층에 위치한 핸드볼장에서 10시부터 13시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되고,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결선투표가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10월 26일에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선거 관련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우리 대학 본관 1층 합동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입후보 등록 예정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주요 일정,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준비사항 및 등록 방법 등이 언급되며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문원재 체육학과 교수, 육현철 사회체육학과 교수, 조준용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 장권 태권도학과 교수 등 한국체대 교수 4명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전 교육부 차관 정종철 교수가 참석했다.

방지혜 기자 202090020@m365.knsu.ac.kr

선거일

- 일자 : 2022.12.1.(목)
- 투표시간
 - 1차 투표 : 10:00 ~ 13:00 (개표 13:00~14:30)
 - 결선투표 : 14:30 ~ 17:30 (개표 17:30~19:00)
- 투표장소 : 핸드볼장(오륜관 2층)
- 투표방법 : 종이투표

선거기간

- 기간 : 2022.11.17.(목) ~ 12.1.(목)

선거운동기간

- 기간 : 2022.11.17.(목) 09:00 ~ 11.30.(수) 24:00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 일시 : 2022.11.24.(목) 14:00
- 장소 : 대강당(필승관)

법률자문 의뢰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질문의 요지

귀 학교는 대학구성원의 투표비율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회에서 심의·확정한 행위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2. 검토의견

1) 규정 개정TF 구성의 정당성

- 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 및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② 이에 따라 귀교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 교무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규정 개정TF는 총장임용후보자선정을 위하여 학내구성원의 투표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교원 및 직원, 학생들의 합의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점
- 등에 비추어보면, **TF 구성에 교무위원이 참여하고, 나아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TF 회의를 주재한 것은 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짐.**

2) 규정 개정TF의 논의사항을 대학평의회에서 심의·확정한 행위의 정당성

가) 절차적 정당성의 경우

규정 개정TF에서 심의 및 확정하여야 할 사항을 대학평의회에 총장 명의로 심의요청하기로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TF의 구성 및 운영에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TF의 결정을 통해 대학평의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것 또한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나) 실질적 정당성의 경우

규정 개정TF에서 대학평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14명 중 11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였고 1명이 절차에 문제제기를 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여 확정된 것은 그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학평의회의 의사결정은 **총장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긴 싸움의 결과, 처음 시행되는 ‘140명의 학생비례선거단’

이어서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선거 진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장 선거 진행 방식은 2가지로, 학생 전체를 선거인으로 정하는 ‘전체 학생 선거인단 방식’과 학생 전체가 아닌 대표 격의 소수만을 선거인으로 정하는 ‘소수 학생 선거인단 방식’이 있다. 각 투표 방식의 학생 1인당 실질 유효표는 전체 학생 선거인단 0.005표, 소수 학생 선거인단

0.162표이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와 제3차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비례선거인단 모집안’이 결정되었다. 학생비례선거인단은 총장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학과별 재학생 수의 5% 안으로 선정한 후 신청자 대상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학생비례선거인단은 재학생 인원 기준 5%인

140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약간의 인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잇따랐지만, 이번 총학생회장단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를 위한 총학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송석 총학생회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비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선 총학생회장 송석학우(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8)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사실 우리에게는 총장 투표 비율보다도 더 나은 대학을 위한 총장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대학 본부는 구성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율을 통해 총장 선거를 진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부는

총장 선거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졸속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진행 과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학 내문제 해결의 불씨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도 대학 내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큰 벽에 가로막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히기 일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부터 관심을 두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하는대학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